https://doi.org/10.31821/HEM.90.5

온라인 뉴스 댓글에 달린 '답글'의 불손성 연구

엄진숙*

‖ 차 례 ‖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및 연구 문제
Ⅲ.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온라인 뉴스 댓글에 달린 답글의 언어 양상과 의견 표출 양상을 분석하여 불손성에 대해 고찰해 본 연구이다. 우선 온라인 답글에서는 익명성과 비대면 특성으로 인해 상대를 낮추는 반말 종결어미가 주로 사용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반말 사용은 이미 주된 흐름으로 볼 수 있었으나 반말이 항상 불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반말과 반존댓말을 사용한 답글이 높임말 답글보다 불손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손도 불손도 아닌 객관적 태도를 보여 주는 무표적 말투로 높임과 낮춤 자질이 배제된 중화체 '함체' 사용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상대를 직접 지칭하며 쓴 답글은 그렇지 않은 답글보다 불손성 비율이 높았다. 지칭어를 사용한 답글은 모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맥락이었으며 다양한 지칭어가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반말 2인칭 대명사 '너(니)'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비하 지칭어, 복수화 지칭어도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답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체면을 위협하고자 명시적인 어휘를 선택해 상대를 지칭함으로써 불손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답글의 의견 유형 가운데 반대 의견 표출 시 반말이 가장 많이

*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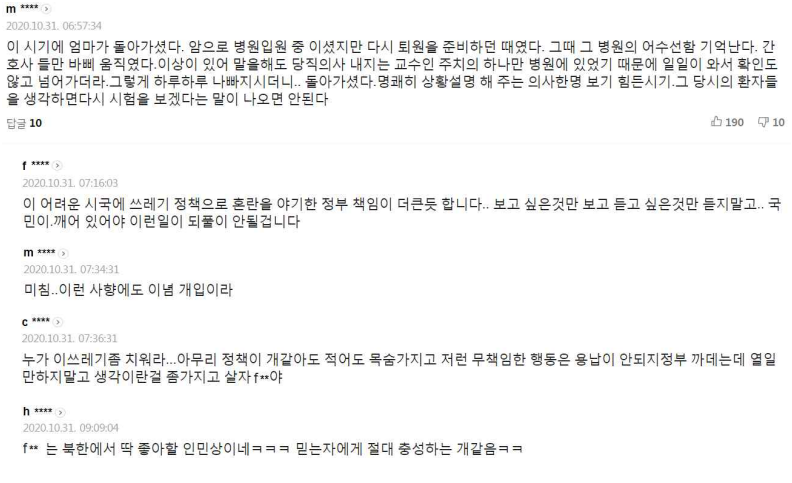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불손성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의견 유형이 불손성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온라인 답글, 불손성, 반말 종결어미, 반존댓말, 함체, 중화체, 지칭어, 의견 표출

Ⅰ. 머리말

현대사회의 온라인 공간의 독자들은 관심 있는 뉴스에 대해 직접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그러한 특정 댓글에 대해서는 <도표 1>과 같이 또 다른 독자들이 답글을 달아 동의나 반대 등의 의견을 표현한다.

〈도표 1〉 답글의 예 '의대생 국가고시 갈등 파국 치닫나'(YTN[1], 2020.10.31.)



1) 포털 사이트에서는 여러 방송사의 TV 뉴스 영상과 함께 내용을 전사한 기사문을 보여 준다.

이처럼 온라인 뉴스에 대한 댓글 및 답글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독자들이 쌍방향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은 입장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건전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의 현실은 익명성의 보장 아래 비방과 욕설 등이 난무하는 매우 무질서한 공간[2]이 되고 있다.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요인과 상관없이 관계의 평등성이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답글에서 의견을 표출할 때 상대에 대한 의도적인 불손성(impoliteness)이 확연히 드러나는 위와 같은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 특히 6등급의 상대높임 체계를 지닌 한국어의 언어예절은 면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 양면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면대면 소통의 언어문화와 달리 비대면의 온라인 공간에서 반말 문화를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 언어문화의 규범에 의하면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도표 1>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면적인 양상에 주목하여 실제 온라인 뉴스 댓글에 달린 답글의 언어적 양상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불손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답글'이란 '인터넷에 오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글 또는 인터넷에

2) 이성식(2005)은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이 언어폭력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원현 외(2019)도 익명성이 온라인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3)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댓글과 답글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그러나 인터넷 동호회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하며 또 대면 상황에서 아이디(닉네임)로 서로를 부르기도 하는 등 회원 간에 개인적인 정보를 아는 경우가 많아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뉴스의 답글은 인터넷 동호회의 답글 특성과 차이가 있다.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로 사전적 의미[4]가 '댓글'과 순환적으로 정의되어 지시하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답글[5]을 위의 <도표 1>과 같이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온라인 뉴스 원문에 대해 의견을 적은 특정 댓글에 대해 또 다른 독자들이 그 아래에 덧붙여 남긴 글'로 의미를 한정해 뉴스 원문에 대한 댓글과 구별하기로 한다. 온라인 뉴스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댓글은 자기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출한다는 독백적 특성이 강한 데 비해 답글의 경우에는 특정 댓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6]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적으로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답글을 대상으로 하여 그 언어 사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불손성과 연관지어 고찰해 보려 한다.

Ⅱ. 선행 연구 및 연구 문제

선행 연구로는 먼저 온라인 댓글 및 답글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조수선(2007)에서는 448개의 온라인 댓글 표본을 추출하여 유형을 분석한 후 댓글 게시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도영(2018)은 댓

4) 표준국립국어대사전(http://stdict.korean.go.kr)

5) 송민규(2004:179)는 '답글(response message)'의 상위개념 안에 댓글(리플, reply)과 덧글(comment)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성환 외(2018:136)에서는 발제글에 달리는 댓글들을 '댓글트리' 구조로 설명하고 '부모댓글'과 '자식댓글'로 분류하였다.

6) 이창덕 외(2000)에서는 면대면 상황의 특성으로 직접성, 현재성, 참여자의 교류성을 꼽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공간의 비대면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답글이 달린다는 점에서 현재성과, 쌍방적인 의견 교류의 차원에서 참여자의 교류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에 대한 답글 중에 페이스북의 온라인 기사 댓글에 달린 답글을 분석해 유형적 특성과 언어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안태형(2015), 구현정·서은아(2012)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에 대해, 이정복·박은하(2019)는 온라인 언어에서의 욕설 사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언어의 유형, 비속어 및 욕설, 동조와 비방 등의 발화 목적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또 송민규(2004)는 인터넷 게시판에 달리는 답글의 양방향성에 주목하여 동시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하예림 외(2019)는 인터넷 뉴스 댓글을 높임말과 비속어 단어 수가 반비례하는 양적 분석 결과를 통해 비속어 댓글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댓글 및 답글이 상관적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에 근거해 한국어의 높임말 문화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답글을 작성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의사를 의도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양방향을 넘어 다방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높임말의 선택적 사용을 통해 공손성(politeness)을 드러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언어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공손성이란 상호 대인관계의 마찰을 감소시키고(Lakoff, 1975) 갈등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예절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Leech, 1980)이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공손성을 드러내는데 이때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Brown & Levinson, 1987, 이하 B&L)을 사용한다. 반면에 불손성은 부정적인 태도가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발현되고(Culpeper, 2011) 불필요하고 대립적인 언어적 체면 위협 행위(FTAs, face treatening acts)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가 목적의식 있게 전해지는 것(Bousfield, 2008)을 의미한다. 불손성이 공손성과 단순한 비교에서 양

끝에 있는 반대 개념은 아니며(Culpeper, 2012)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도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공적 이미지'(B&L, 1987)인 체면(face)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권마다 세부적인 개념이 상이하다. 한국 사회에서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체면 위협 행위라 하면 초면의 반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표 1>과 같이 과거에 대화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의 이력 없이 반말을 사용하는 등의 이러한 언어 양상과 관련하여 온라인 답글을 불손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독적 장면이 아님에도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낮추려 하며 대립적인 태도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려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사용되는 온라인 공간의 언어에 대해 불손성과 관련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답글을 분석하여 면대면 언어 상황에 비해 어떻게 이질적인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결어미를 상대높임 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아울러 2인칭 지칭어 사용 및 의견 표출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7].

7) 한국어의 높임은 문법과 어휘 요소로 실현되며 본고에서 분석한 상대높임 종결어미와 지칭어가 이에 해당된다. 문법적 요소 중에는 높임 선어말어미와 높임조사도 있는데 본 연구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 횟수는 매우 적었고 조사의 경우에도 '께'와 '께서'가 2인칭(댓글이나 다른 답글 작성자)을 높이는 맥락으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보조사 '요'의 경우에는 해요체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되었다.

Ⅲ.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온라인 답글의 불손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주제별로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의 6개 분야[8]의 온라인 뉴스 8개를 선정하여 검색일 당시(2020.10.4.~10.7.)의 댓글 67건에 달린, 상대방을 특정하여 작성된 1,028건의 답글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온라인 뉴스 목록이다.

(1) 온라인 뉴스 목록

가. 정치 – 'BTS 병역특례' 함구령 내린 이낙연 "BTS 병역 문제 말 아껴라"(서울신문, 2020.10.07.)

나. 경제 – 집주인 1명이 세입자 202명의 전세보증금 413억원 떼먹어(연합뉴스, 2020.10.07.),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수정 없다…증세 아닌 과세형평"(더팩트, 2020.10.07.)

다. 사회 – '장관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복지부, 낯 뜨거운 추석 포스터에 뭇매(서울경제, 2020.10.04.)

라. 생활 · 문화 – "꼬북칩이 그리 맛있어?" 동네슈퍼 곳곳서 품절(매일경제, 2020.10.06.), 열차 탔더니 웃통 벗은 남자들이 암바에 헤드락을...열도의 기막힌 위로(조선일보, 2020.10.07.)

마. 세계 – 뉴질랜드서 망신 당하고도... 대사관 성추행 또 몰래 덮었다(중앙일보, 2020. 10.07)

바. IT · 과학 – "과도한 몸매 부각" "미성년자 성 왜곡"…웹툰 '체인지'도 여혐 논란(조선일보, 2020.10.06.)

상대높임과 지칭어 분석은 형태별로, 의견 표출은 발화 목적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손성 여부는 '상대의 체면을 깎아 내리기 위한 의도성

8) 연예 · 스포츠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날로 심해져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경부터 연예 뉴스에, 8월경부터는 스포츠 뉴스에 댓글 및 답글 작성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가령 앞의 <도표 1>에 나온 세 번째 답글 'c**'의 경우 전체 맥락에서 불손성이 분명히 보이며, 해라체와 해체 교차 사용, 지칭어 'f**' 및 '쓰레기' 사용, 댓글에 대한 반대 의견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28건의 답글을 각각 분석하여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Ⅳ. 분석 결과[9] 및 논의

1. 상대높임과 불손성

한국어는 6체계의 상대높임법에 따라 종결어미의 높임 자질 유무로 높임과 낮춤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이루어진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상대높임 종결어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답글의 경우에도 양방향 소통의 특성을 드러내며 하오체를 제외하고 다음의 (2)와 같이 상대높임 종결어미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2) '장관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복지부, 낯 뜨거운 추석 포스터에 뭇매(서울경제, 2020.10.04.)[10]

9) 참고로 답글의 언어적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불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추가적으로 단순선형회귀분석(SPSS Statistics 25 이용)을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분석 결과 상대높임 F=7.826(p<.01), R제곱=0.008, β =-0.087(p<.01), 지칭어 사용 F=35.979(p<.001), R제곱=0.034, β =0.184(p<.001), 의견 표출 유형 F=3.988(p<.05), R제곱=0.004, β =-0.062(p<.05)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유의한 수준에서 불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0) 인용문은 '기사 제목-댓글-답글'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댓글과 그 아래에 달린 답글을 분명히 구분하여 본고에서는 답글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리고 댓글과 답글 작성자의 아이디는 통일하여

– s** 하나같이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숟가락만 얹은 놈들만 전면에 내세웠군ㅋㅋㅋㅋㅋ 고생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다하는데 (하략)

가. g** 달님의 숟가락 얹기 신공을 본 학습효과가 바로 나타나는군요(해요체)

나. s** 납량특집 간담이 서늘하네(해체)

– o** "(메르스)슈퍼 전파자는 박근혜 정권이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때 문재인– 〈…〉 지금은 슈퍼전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퍼트린 사람이 잘못이래 ㅋㅋㅋㅋ

다. s** 참 불쌍한 인간이로세(하게체) 조부모님 부모님 없이 당신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평생 늙지 않고 젊음 그대로 있을까?

라. sm** 슈퍼전파자가 박근혜정부라고 말한 당시의 기사 부탁드립니다(하십시오체)

마. l** 대깨들은 답이 없다. 고로 잡아서 모두 박멸이 답이다.(해라체)

답글 작성자가 사용하는 상대높임 종결어미 사용 비율을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체 33%, 해라체 16.5%, 해체와 해라체를 교차 사용[11]한 경우가 11.7%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답글은 문자메시지나 편지글과 같이 상대를 특정한 것이며 상대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말 어미가 61.2% 사용된 것이다. 높임 자질을 지닌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사용 비율은 13.3%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말 사용 양상을 상대높임 어미를 교차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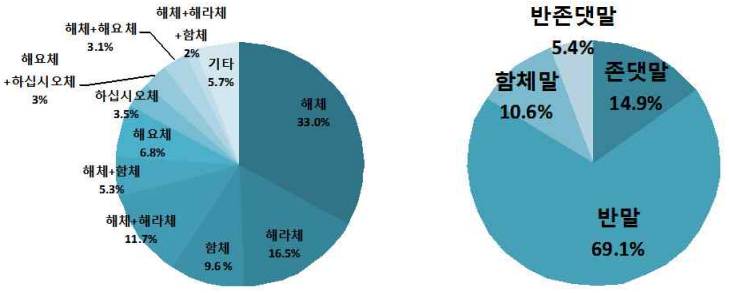
'a**(알파벳**)'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검색 당일 인터넷에 올라온 답글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띄어쓰기의 경우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11) 성기철(1985), 남기심 외(1993), 이정복(1996), 문혜심(2009), 홍종선(2009) 등에서 두 개 이상의 높임 종결형이 함께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12) 이 분석에서는 해체나 해라체가 함체와 교차 사용된 경우들의 경우 상대높임이 무표적인 함체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각 답글을 하나의 텍스트로 볼 때 반말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낮춤의 의도가 현저히 드러나기 때문에 반말 유형에 포함되

반말이 69.1%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존댓말은 14.9%에 불과하다.

〈도표 2〉 온라인 답글의 상대높임 양상[13]



온라인 답글 작성자들은 상대에게 높임 어미를 통해 공손성을 드러내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디 정보만으로 상대를 동등하게 인식하여 반말 사용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상황에서 문자 언어를 통한 익명적인 소통이라면 반말과 높임말이 더 이상 대면 상황에서의 기준과 동일하지 않게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면대면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반말과 존댓말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초면에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손성을 드러내는 것[14]이라 할 수 있다. 김미경(2020:115)은 '모든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어 분석되었다.

13) 기타 5.7%에는 상대높임 종결어미의 교차 사용이 포함되며 이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14) 실제로 반말 시비가 붙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반말 시비' 뉴스를 검색한 결과 "나이도 어린 게…" 반말 시비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한국경제TV, 2020.10.12.), "왜 반말해" 목 조르고 머리 뜯은 입주민…또

는 존대법이 강요하는 서열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답글에서는 면대면 상황과 달리 상대높임 어미가 작성자 개개인의 판단에 의거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초면의 경우 상대높임의 선택에는 언어문화가 공유하는 예절이 고려되지만 이와 달리 비대면의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답글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자기 역할에 맞는 사회적 자아[15]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익명성의 온라인 공간에서 답글을 통한 의견 교환은 각 개인의 사회적 자아가 배제되고 단지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사 표시만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 사회의 언어예절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 현상으로 간주된다.

(3) 열차 탔더니 웃통 벗은 남자들이 암바에 헤드락을...열도의 기막힌 위로(조선일보, 2020.10.07.)

– m** 일본이 즉흥적으로 산다고? 하하. 일본이야말로 특정사안들에 대해서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진짜 성숙한 선진국이다. 〈…〉

j** 아니 그러면 조국의 품으로 안기시지 왜 상것의 나라에서 상놈의 언어를 쓰며 상놈과 대화를 하십니까 나으리? 이제 그만 꺼져 주시옵서서 ~ 상놈들끼리 잘 살겠습니다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높임 자질을 지닌 상대높임 어미를 사용한 경우에도

경비원 폭행(JTBC, 2020.08.19.), '한강 훼손 시신' 30대 "반말로 계속 시비 걸었다"(YTN, 2019.08.18.) 등 해마다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검색일 2020.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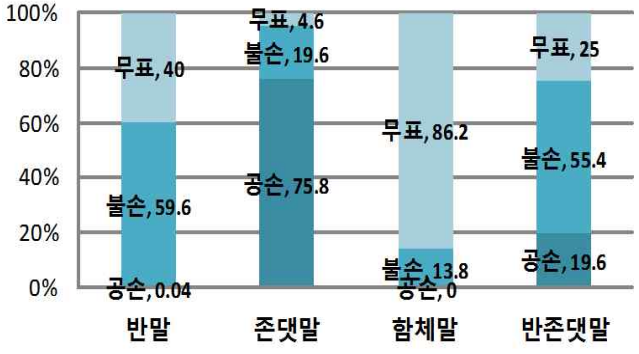
15) 한국화법학회(2014:168)에서 사회적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곧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자아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불손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19.6%로 나타나 의도적인 불손성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반말의 경우라도 모두 불손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는데 높임의 선어말어미나 어휘를 사용한 40%의 경우 (4)와 같이 공손도 불손도 아닌 무표적인 맥락으로 나타났다.

(4) 가. g** 딸기콘 아시는 분 ㅠㅠ 왜 안 보이는지ㅠㅠ
나. e** 이 분 과자맛 아는 분이네.. 히말라야 소금맛... 돌려 줘...

이처럼 상대높임 어미의 고유한 의미 자질이 공손성과 연관이 있기는 하나 온라인 답글에서는 이미 반말 사용이 주된 흐름이 되어 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불손성은 답글의 내용 맥락이나 의견 표출 태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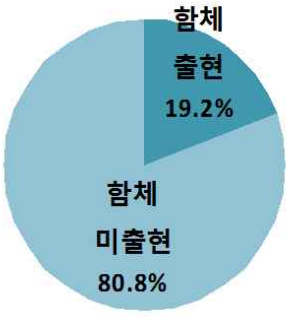
〈도표 3〉 온라인 답글의 상대높임과 불손성 양상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반말과 존댓말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함체'[16] 사용 비율이 10.6%로 나타났다. 함체 종결어미는 기존의 상대높임 체계 용어에 따라 명사형 어미 '-(으)ㅁ'으로 실현되는 형태

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도표 4〉 온라인 답글의 함체 양상



명사형 어미 '-(으)ㅁ'은 주로 '미세먼지 좋음', '날씨 맑음' 등과 같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경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 기능으로 주로 문어에서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형태[17]이다.

16) 상대높임의 명칭은 주로 명령형 어미형으로 부르고 있어 '하셈체'가 더 정확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사형 어미를 '함체'로 설정하여 부르기로 한다. 이는 '우리말샘'(https://opendic.korean.go.kr)에 설명되어 있는 '음슴체'를 의미하는데, 현재 표기 방식에서 '-슴' 어미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 형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연구자의 판단에서 본고에서는 '함체'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명사형 어미의 사용에 대해 전현진(2000:29)은 컴퓨터 통신 대화에서 경제성과 익명성으로 인한 상대높임 단계 선택의 망설임 현상으로 설명하였고 이정복(2001:139)에서도 글자 입력의 경제성을 위해, 상대높임 단계 선택이 곤란할 때 사용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손세모돌(2002:126)에서는 이러한 연구들과 관련해 명사형 종결형의 사용이 상대높임을 중화시키는 '문체적 효과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17) 뉴스 방송에서 "밤에는 경남 지역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2020.10.21. JTBC 뉴스룸 '날씨박사' 기상 예보 중에서)와 같이 구어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문장종결형으로 10대, 20대의 젊은층에서는 일대일의 채팅이나 문자메시지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구어에서 사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현저

그러나 온라인 답글에서는 이 형태가 하나의 종결어미로서 일정한 유형을 띠며 다양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답글 작성 시 함체를 최소 1회 이상 사용한 비율은 전체의 19.2%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분석한 온라인 답글의 함체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혹은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려 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문어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5나)와 같이 문장종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함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5) 집주인 1명이 세입자 202명의 전세보증금 413억원 떼먹어(연합뉴스, 2020.10.07.)

– b** 2주택자 잡지 말고 3주택이상만 뚜들겨잡자 서민들 돈 모아서 노후에 월세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다 10채 20채 가진 것들이 진짜 악이지 〈…〉

가. k** 주택 많은 게 죄냐 ????? 뭔 공산당이냐?????? 참고로 나는 무주택자...;;

나. p** 나도 2주택까지는 봐 줬음 좋겠음. 다만 이유가 다른데 1주택만 허용하면 이사가 빡셈. 집이란 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는 거랑 원래 집을 매도하는 타이밍이 딱딱 맞을 수가 없음. 〈…〉 본인이 이 상황 되어보면 그게 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함.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모은 돈을 그리 쉽게 포기하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됨.

함체는 평서형과 의문형이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청유형과 명령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셈'[18]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직 없다. 함체말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용언 어간 뒤에 '-삼'을 결합해 사용하는 '하삼체(또는 삼체)'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때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네이버 오픈사전에 등

(6) 가. h** 조vs국 : 개천에서 용 날 생각 말고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사셈 ㅎㅎㅎ

나. m** k방역같은 희대의 쌉소리 마셈. 한국인이 스스로 격리해서, 스스로 거리를 잘 알아서 두고, 불필요한 이동을 스스로 자제해서 그렇지. 시스템같은 헛소리하면 뺨 개맞아야 함. 〈…〉 나라에서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라 햇는데 왜 납기일은 그대로임? 일하지 말라는데, 납기일이 그대로인 건 뭔 개소리인지? 국개 300명과, 정부, 공무원 수만 명 중 한 놈도 이거 해명하는 놈 있엇음? K-방역이라는게 실체가 이거임 ㅇㅋ?

앞의 <도표 3>을 보면 함체말의 86.2%는 공손도 불손도 아닌 무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답글 작성자들이 상대에 대한 높임과 낮춤의 의미 자질을 모두 피하고 등급이 중화된 함체를 독립된 하나의 문체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함체가 높임과 낮춤 자질이 아예 배제된 중화체[19]로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소통에 적합한 것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어미의 교차사용에 관해 살펴보면 온라인 답글에서 사용되는 상대높임 종결어미는 단독 사용이 70.8%, 교차 사용이 29.2%로 나타났다. 그중에 다음 (7나)와 같이 반말과 높임말을 의도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반존댓말[20]'이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록되어 있기도 하나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형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9) 신문이나 소설 등의 문어에 사용되는 하라체 역시 높임이나 낮춤의 자질이 없는 중화체로 볼 수 있으나 특정 상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함체와는 차이가 있다.

20) 본고에서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사용하는 언어 양상을 '반존대'로 정의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과도한 몸매 부각” “미성년자 성 왜곡”…웹툰 ‘체인지’도 여혐 논란(조선일보, 2020.10.06.)

- m** 검열의 시대네 걸 그룹 복장도 단속하고 만화도 단속하고 페미들은 현실 범죄엔 관심 없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나 봐

가. l** 저런 게 현실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문제 삼는 거지

나. r** l**(상대 아이디) 만화 뮤직비디오에만 광분하는데, 저런 게 현실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런다고? 진짜로 현실범죄 저질러도 지들 편이면 찍소리도 안 하더라. 심지어 별거 아니라고 지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2차 가해 서슴지 않고 하더만. 그건 뭐냐? 뭐라고 변명하실 거요?

다. j** “꼭 살려야 한다” 이딴 글 적어 놓고 쑈 하던 거 생각 안 나심??

(7나)는 웹툰에서 여성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글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의견인데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반존대’의 경우로 이는 구어에서 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이[21]이거나 연장자가 나이가 적은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말을 주로 사용하다가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등의 맥락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22] 예가 많이 나타났다. 아래의 (8나)도 높임 선어말어미나 높임 어휘를 사용하기는 하나 불손성이 드러나는 맥락으로 사용된 반존대로 볼 수 있다.

(8) ‘BTS 병역특례’ 함구령 내린 이낙연 “BTS 병역 문제 말 아껴라”(서울신문, 2020.10.07.)

- g** 이건 BTS가 가냐, 안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클래식 음악,

21) 남기심 외(1993)에서는 ‘동일한 인물에게 한 등급 이상의 상대높임법을 씀으로써 상대를 높였다 낮추었다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로 사이가 매우 가까운 사람들끼리 의도적으로 반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여운 느낌, 친근감, 적당히 존중해 주는 느낌 등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편적이기는 하나 ‘반존댓말하기’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이러한 현상은 구어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스포츠에서만 해당되던 병역특례가 2020년에는 대중음악까지 확대해서 보냐, 안 보냐의 문제 아닌가요....???

가. j** 남자들 진짜 다 군대 가야 한다는 멍청한 심보ㅋㅋ 징병제 폐지가 답이지

나. h** ㄴ멍청한 심보가 아니라 안보 교육부터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명확한 주적이 있는 전시 국가에요. 다른 국가들이 징병제 폐지나 국방비 절감할 때 왜 한국은 gdp 대비 평균 이상으로 쏟아붓는지 모르시나 보네.. 이러니까 군대를 가던 안 가던 안보 교육은 받게 해야 한다니까...

이는 문어에서의 반존대 현상으로 높임과 낮춤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어미를 섞어 사용하는 교차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도표 3>에서 보듯이 이러한 반존댓말은 공손 19.6%, 불손이 55.4%로 나타나 불손성 비율이 더 높다. 이로 보아 상대를 낮추는 반말을 의도적으로 한 번이라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불손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2. 2인칭 지칭과 불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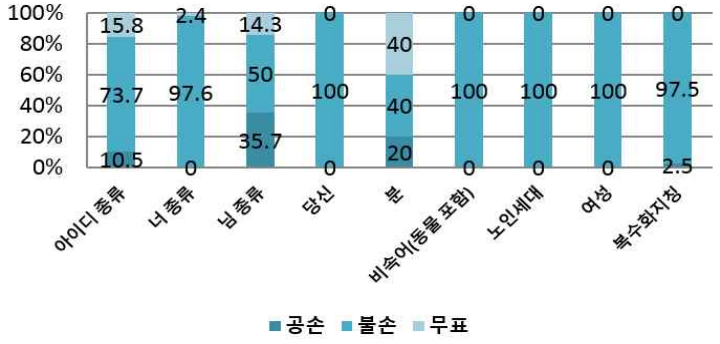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언어 예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칭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상대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온라인 답글을 분석한 결과 지칭어[23]는 192건의 답글에서 나타났는데 전체의 18.7%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상대 의견에 반대하는 맥락이었다.

지칭어 가운데 반말 2인칭 대명사 '너(니)'를 사용해 상대를 지칭하는 비율이 21.4%로 가장 높았고 아이디 지칭이 19.8%, '님' 종류가 7.3%로

23) 본고에서는 '-님'이나 '야' 등의 호칭어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나타났다. 이외에도 '당신', '분' 등 다양한 지칭어가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는 어휘가 많았다. 이러한 지칭어는 대부분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였는데 '대깨문, 문빠, 빠순이, 국뽕, 거지, 토착 왜구, 친일파, 그쪽당, 쪽빠리' 등이 나타났다. 또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해 여성과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페미, 언냐들, 이년들, (꼴통) 늙은이, (태극기) 틀니, (뇌 사리 우동) 할배, 노망이'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하 지칭어는 총 91회로 전체의 47.4%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칭어 종류에 따른 불손성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도표 5〉 지칭어와 불손성 양상



위의 <도표 5>를 보면 '분'과 '님 종류'가 사용된 답글을 제외하고 모두 70% 이상이 불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9나)는 'n**님'이라고 상대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부르고 나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9다)는 아이디 지칭 후 바로 비속어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불손성을 보이고 있다.

(9)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수정 없다…증세 아닌 과세형평"(더팩트, 2020.10.07.)

– s** 조세 형평성이라구요? 말 한번 잘하셨습니다. 2023년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양도세 신설. 주식 수익 시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 주식 양도세는 개인들 피 빨아먹는 세금폭탄 신설입니다.

가. n**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주식은 뭔데 세금 안 내냐? ㅋㅋ 막말로 수억씩 금융이익 보는 사람들이 서민이냐? 2억 수익 보려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하냐? 아 급등주 테마주 이런거 말고 ㅋㅋ 5천만원 이득까지는 세금도 안 내네? 노점상도 세금 내라는 판에 ㅉㅉ

나. s** n**님(상대 아이디) 논점 흐리지 마세요. 조세형평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양도세 신설 안 되도 투자자 전부 세금 다 냅니다. 그 논리면, 대한민국 다주택자들 죄다 연좌제로 세금부과해야 합니다.

다. p** s**(상대 아이디) 개소리하고 있네 주식은 손실 시 환급 안 해줘서 해외 주식조차 안 냈어 ㅋㅋㅋㅋㅋㅋ 〈…〉

그리고 다음의 (10)과 (11)을 보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답글 작성자들을 복수화하여 '님들',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은 72회로 전체의 37.5%에 해당되며 이런 지칭어를 사용한 맥락 가운데 97.2%가 불손성을 나타냈다.

(10) "과도한 몸매 부각" "미성년자 성 왜곡"…웹툰 '체인지'도 여혐 논란(조선일보, 2020.10.06.)

– s** 저건 시선강간이고 등산이나 헬스장에서 레깅스 처 보라고 입고 와서 보라는 거는 시선강간 아니냐?

가. d** 20 30대 남성 대부분이 시선강간이 합당하다고 보는구나... 진짜... 이제 현실이라는 게 너무 더럽다. 본능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번도 피해자였던 적 없고 평생을 가해자로 살아 왔으면서. 너희가 쳐다보는 걸 여자들이 아는 순간 너희는 벌레만도 못한 범죄자 수준이야. 평생 이상한 것

만 보니까 머리도 이상해졌나 보네

나. p** 근데 진짜 넘들 보라고 레깅스 입은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은 입지마라 이러는 거 보면 그것도 웃긴데.. 근육이 잘 보이려고 입든 자세 때문에 입든 본인 맘이지 그걸 왜 욕해 ㅋㅋㅋ

2인칭 단수에게 하는 말인데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답글 작성자들을 집단화하여 반말 복수대명사 '너희'나 복수 접사 '-들'이나 '-네'를 사용해 지칭하는 것은 자기와 의견이 같은 집단 구성원 간의 동질감을 강조하고 입장의 공동지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자신과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아닌, '우리와 반대에 서 있는 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자들, 니 같은 것들, 니네, 당신네' 등과 같이 복수화 지칭어를 사용해 선을 분명히 그음으로써 자기 의견이 개인의 의견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11) '장관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복지부, 낯 뜨거운 추석 포스터에 뭇매(서울경제, 2020.10.04.)

– n** 보건복지부가 저런 곳입니다. 의학과는 성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자화자찬하고 세금 빼돌리고 썩어빠진 고인 물 기생충 같은 집단임. 저기는 한번 갈아엎어야 함

가. k** 쇼에 미쳐서 댓글이나 쳐 달고 있는 당신네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댓글 모음들 보면 주구장창 댓글만 달고 다니는데 정치도 빨리 댓글 없어지길.. 그래야 세금 내는 분들이 늘어날 듯

나. d** ㄴ 그니깐요 아주 선동하는 놈들이 판을 쳐요 특히 중궈나 북한쪽 댓글부대들이 득실거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를 복수화하여 지칭하는 것은 오미영(2011: 9)에서 언급한 '익명성이 전제된 인터넷 공간에서는 탈개인 효과[24]가 일어나 집단 정체감이 뚜

24) 탈개인화 사회정체성(SIDE,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렷해지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상대를 동물에 비유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해 지칭하는 (12)와 같은 경우도 13.5%로 26회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의도적인 불손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맥락이다.

(12) 가. g** 역시 개돼지들ㅋㅋ 일본을 본받으라는 거지 그럼 일본으로 가서 살아 ㅋ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있지
나. k** S**(상대 아이디) 저 머가리는 알바비 많이 받냐? 어찌 짱깨도 안 지껄이는 개소리만 지껄이냐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 북한으로 제발 꺼져

(12나)는 앞의 답글 작성자에게 '대가리'를 뜻하는 '머가리'[25]로 상대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k**'는 분명히 'S**'를 2인칭 상대로 지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시 관형사를 사용해 마치 다른 작성자들과 함께 동일한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상황을 연출하며 앞의 답글 작성자를 지칭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의 영역을 가리키는 '저' 계열의 지시사가 6건의 답글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복수화 지칭어와 동일하게 입장의 공동지향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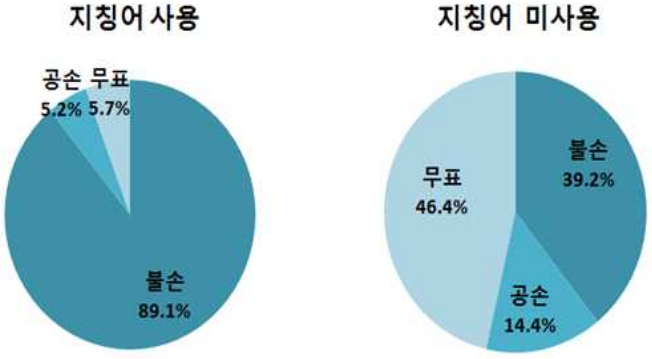
아래의 <도표 6>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칭어를 사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

모델에 따르면 탈개인화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서 보지 않고 개인들이 집단 안에서 행동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25)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음절을 시각적으로 보기에 언뜻 비슷한 모양의 다른 음절로 바꿔 쓰는 방식을 '야민정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멍멍이'를 '댕댕이'로, '명작'을 '띵작'으로 바꿔 쓰는데 이를 일종의 언어유희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언어 파괴 현상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악성댓글을 감지하는 '클린봇'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욕설이 자동 삭제되는데 여기에 감지되지 않기 위해 이처럼 야민정음 방식의 어휘를 쓰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욕설을 모아쓰기 대신 풀어쓰기하는 경우도 더러 나타났다.

았을 때보다 불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칭어를 사용하지 않은 답글은 836건이며 그 가운데 불손성이 드러난 것은 39.2%에 불과하다.

〈도표 6〉 지칭어 사용 유무에 따른 불손성 양상



그러나 192건의 지칭어를 사용한 답글의 경우 89.1%가 불손성이 나타났다. '아이디, 분, 님' 종류에서 공손 10건, 무표 11건을 제외하고는 상대 또는 상대를 포함하여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집단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지칭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손성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3. 의견 표출과 불손성

온라인 답글은 뉴스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뉴스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댓글이 선행적으로 작성되어야 답글 작성자들이 연쇄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답글 작성자들의 의견 표출 유형과 불손성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전체 답글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전체의 53.1%[26], 동의는

24.5%, 화제 전환 및 기타의 경우 22.4%로 나타났다. 동의와 반대 의견의 분류는 댓글 작성자의 의견 또는 다른 답글 작성자의 의견에 대한 연쇄적인 반응으로서의 동의와 반대(이견)를 의미한다. 다음의 (13가)와 (13나)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인데 높임말을 일관되게 사용한 예이다.

(13) 'BTS 병역특례' 함구령 내린 이낙연 "BTS 병역 문제 말 아껴라"(서울신문, 2020.10.07.)

– y** 운동선수의 메달은 〈…〉 BTS의 자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 〈…〉 연예인들은 군대 갔다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

가. t** 아티스트도 활동하지 않는 동안 본인 관리하면서 앨범 준비해요. 열심히 춤 연습하고 하는 동안 몸도 다치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본인의 이윤 추구가 아닌 생산 활동이 있나요?? 운동선수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가요? 아니죠. 결국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운동선수던 아티스트던 기타 다른 직종이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동시에 나라에 이익이 동반되는 감사한 직업군들이 있는 겁니다.

나. j** t**(상대 아이디) // 쉽게 말해 빌보드 1등은 인기투표고 스포츠1등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한 제로섬 게임에서의 승자라서 누구나 인정하는 1등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군 면제'겠지요. '국위선양' 때문에 군 면제 받는 건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음악은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경쟁' 양상이 뚜렷하구요. 안타깝지만... 대중들은 정부가 BTS 병역 면제를 해 준다고 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 c** 그냥 메달리스트든, 콩쿠르 입상자든, 빌보드 1위 가수든 뭐든 다 군대 가는 게 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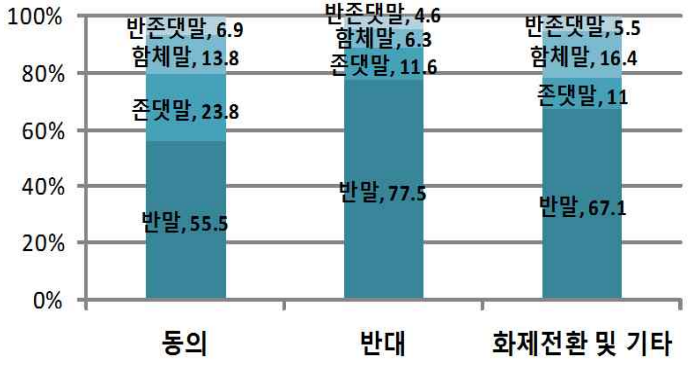
라. p** c**(상대 아이디) 메달리스트는 빼는 게 맞지 나라를 위해 뛰는

26) 오은하(2016)는 인터넷 기사문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 반응, 텍스트 기반 댓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댓글,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댓글로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이 중 마지막 유형에 '다른 댓글 작성자와의 상호 소통'(본고의 연구 대상)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댓글에서는 본고의 분석과 달리 비판적 인식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거와 재들이랑 같냐? 그리고 운동선수는 평생 소속팀에서 뛰고 국가대표 나오냐?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그리고 운동선수 은퇴하고 대부분 뭐하고 지내는지 살펴보고 뭐 다 잘사는 줄 아냐? 그 혜택도 없애면 어쩌라는 거냐?

그러나 다음의 <도표 7>을 보면 의견 표출에 따른 상대높임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종류의 의견 표출에서 반말 사용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답글에서는 의견 유형에 관계없이 반말 사용이 일반적인 양상임을 의미한다.

〈도표 7〉 온라인 답글 의견에 따른 상대높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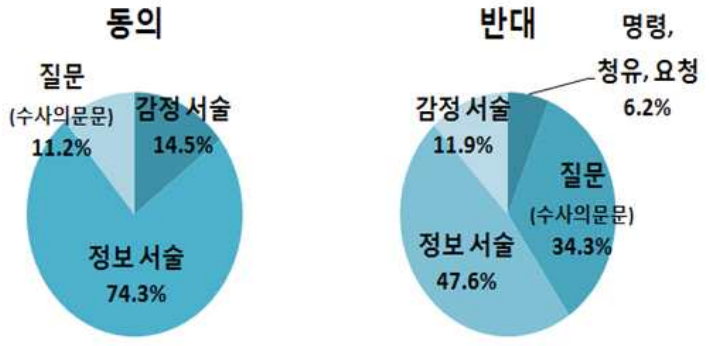


그러나 반대, 화제전환의 경우보다 동의의 경우 존댓말이 더 많이 사용되어 23.8%로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 표출 시 반말이 7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화제전환 및 기타 및 동의의 맥락에서는 함체말의 사용 비율이 각 16.4%, 13.8%로 반대 의견 표출의 6.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상대높임 의미 자질은 온라인 답글의 의견 표출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펼칠 때에 앞의 (13라)와 같이 상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수사의문문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가 했던 말의 일부를 똑같이 되풀이하며 되묻기를 통해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도표 8〉 온라인 답글의 의견 표출 양상



위의 <도표 8>을 보면 질문 형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수사의문문 유형이 34.3%로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과 관련된 정보를 서술한 유형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4)의 예와 같이 요청, 청유, 명령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유형은 6.2%로 나타났다.

(14) 집주인 1명이 세입자 202명의 전세보증금 413억 원 떼먹어(연합뉴스, 2020.10.07.)

– c** 다주택자 투기꾼들 양성하는 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소급 폐지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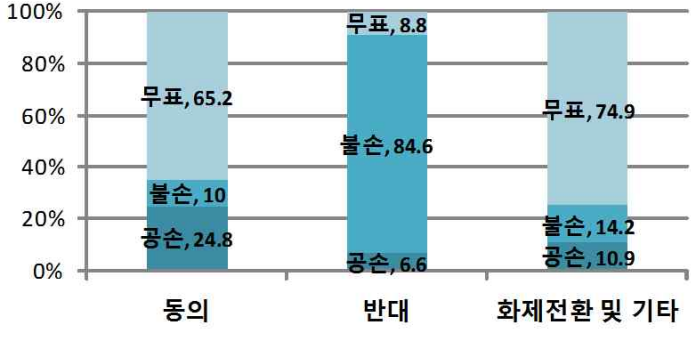
가. f** 모든 임대사업자로 몰아가지 마세요. 저런 임대사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나. p** 입대사업 없애면 월세값 폭등할 텐데..? 대가리는 장식이세요? 생각 좀 합니다?

상대 의견에 대해 동의를 표출하는 답글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나 자기 의견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유형이 7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사의문문 유형은 동의 맥락에서 11.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답글에서 동의 의견을 표출할 때 서술 유형이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수사의문문 유형은 동의보다 반대 의견을 표출할 때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도표 9>는 의견 표출 방식에 따른 불손성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상대 의견에 동의할 때에는 공손이 24.8%, 무표가 65.2%로 나타났으며 화제전환의 경우에는 공손이 10.9%에 불과했고 공손도 불손도 아닌 무표적 맥락이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반대 의견의 경우 불손이 8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 의견에 반대를 표시하고자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상대 체면을 위협하게 되어 불손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표 9〉 온라인 답글 의견에 따른 불손성 양상



동의나 화제를 전환하는 맥락에서는 자기 의사를 특별히 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아 무표와 공손의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답글에서의 의견 표출과 불손성이 관련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디를 통해 '사이버인격'(cyberego) 즉 새로운 제2의 자아(alter ego)를 경험하는데 이는 대면 상황에서의 언어생활과 달리 이중적으로 공손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특히 반대 의견을 표출할 때 그 부담이 낮아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27]가 더욱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온라인 뉴스 댓글 67건에 달린 답글 1,028건의 언어 양상 및 의견 표출 양상과 불손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높임과 불손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답글에서는 반말 어미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반말과 높임말을 교차 사용하는 반존대 현상도 나타났다. 답글 작성자 간의 과거의 상호작용 이력이 전혀 없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반말 사용이 무조건 불손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높임말 사용의 답글보다 반말과 반존댓말의 답글에서는 불손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함체말은 온라인 답글에서 높임과 낮춤의 자질이 없는 중화된 종결형 어미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함체말은 특정한 상대를 지정하여 소통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태도를 보여 주어 공손도 불손도 아닌 무표적인 말투로 온라인 공간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인칭 지칭과 불손성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지칭

27) 류시조(1999)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이버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강조하였다.

한 답글이 불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맥락이었으며 이 가운데 반말 2인칭 대명사 '너(니)'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 상대를 비하하는 지칭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하고 집단의 정체감을 강조하고자 상대를 복수화하여 지칭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답글에서 자신과 구별되는 범주로 구분하여 상대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손성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견 표출 양상과 불손성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답글에서는 의견 유형에 관계없이 반말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반대 의견을 표출할 때 불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의와 화제전환의 경우 공손도 불손도 아닌 무표적 맥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반대 의견의 경우에는 불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의와 화제전환의 경우 함체말 사용 비율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을 표출할 때에는 수사의문문 유형이 동의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익명성의 온라인 비대면 소통의 온라인 답글을 분석해 불손성과 관련한 몇 가지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이 있다. 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코퍼스 언어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로 인해 현대 온라인 공간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언어문화를 종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칭어 사용 및 의견 표출 방식과 관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문화적인 관점의 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구현정 · 서은아, 「악성 댓글의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말연구』 제30집, 한말연구학회, 2012, pp.5-32. (DOI : 10.16876/klrc.2012..30.5)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소명출판, 2020.

김성환 · 탁해성 · 조환규, 「온라인 토론의 댓글 응답 구조를 이용한 사용자 특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pp.135-145. (DOI : 10.5392/JKCA.2018.18.11.135)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1993.

류시조, 「사이버인격권에 대한 소고」, 『외대논총』 제19집 4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9, pp.327-341.

문혜심, 「높임법의 뒤섞임 현상 연구」,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2009, pp. 125-201.

성기철,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1985.

소원현 · 김하균, 「사이버공간에서 심리사회적요인 및 이용자태도와 온라인 활동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집 통권 55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pp.137-146. (DOI : 10.35873/ajmahs.2019.9.5.014)

손세모돌,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 분석」, 『한국언어문화』 제2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pp. 117-150, 2002.

송민규, 「인터넷 게시판 답글의 동시적 특성」, 『한국학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pp.175-202.

안태형, 「네이버(NAVER) 기사에 딸린 악성 댓글의 실태」, 『우리말연구』 제40집, 우리말학회, 2015, pp.153-174. (DOI : 10.18110/urimal.2015..40.153)

오미영,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과 인식』 통권 11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1, pp.39-58. (UCI : G704-001417.2011.35.3.004)

오은하, 「인터넷 기사문의 댓글에 대한 내용 분석: 독자들의 비판적 읽기 양상 탐색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39집, 한국독서학회, 2016, pp.123-158. G704-001476. 2016. (UCI : G704-001476.2016..39.004)

이도영, 「페이스북(Facebook) '답글'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독일 온라인 기사 게시물의 '댓글'에 올라온 게시된 '답글'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 45권,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2018, pp.153-176. (DOI : 10.22832/txtlng.2018.45..007)
이성식,「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한국청소년연구』제16권 제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5, pp.77-108. (UCI : G704-001385.2005.16.1.009)
이정복,「국어 경어법의 말 단계 변동 현상」, 한국사회언어학회,『사회언어학』제4집1호, 1996, pp.51-81.
이정복,「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우리말글』통권 22호, 우리말글학회, 2001, pp.123-151.
이정복·박은하,「네이버 뉴스 댓글의 욕설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사회언어학』제27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19, pp.153-178.
이창덕 · 임칠성 · 심영택 · 원진숙,『삶과 화법』, 박이정, 2000.
전현진,「컴퓨터 통신 대화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조수선,「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커뮤니케이션학 연구』제15권 2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pp.65-84. (UCI : G704-001501.2007.15.2.003)
하예림 · 박민욱 · 우균,「비속어와 높임말의 분포를 고려한 인터넷 뉴스 댓글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9, pp.509-511.
한국화법학회 화법용어해설위원회,『화법용어해설』, 박이정, 2014.
홍종선,「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 체계」,『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2009, pp.9-30.
Bousfield, D., Impoliteness in intera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008.
Culpeper, Jonathan, Impoliteness: Using language to cause off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Culpeper, Jonathan, (Im)politeness: Three issues, Journal of Pragmatics 44, 2012, pp.1128-1133.
Lakoff,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1975.
Leech, G., Explanation in Semantics and Pragmatics, Amsterdam: Benjamins, 1980.
Penelope Brown &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Spears, R., & Lea, M., Panacea or panopticon? The hidden power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21, 1994, pp.427-459.

Abstract

A Study on Impoliteness of Reply on the Comment on the Online Article

Eom, Jin-suk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impoliteness of replies on online articles by analyzing linguistic forms and types of expression of opinion. An analysis of 1,028 online replies produc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non-honorific final-ending was used the most and seems to have become the mainstream choice because of the anonymity of the online forum. Impolite replies with the non-honorific and half-honorific final-endings were more common than the honorific. In addition, "ham style" was used for the both the unmarked style that does not involve politeness or impoliteness and for the neutralized style that does not involve honorific or non-honorific. Second, there were more impolite replies addressing the other with a certain word than not addressing. The replies were written with various terms of address including the undignifying and the plural terms and those were all the opposite opinion's replies. The non-honorific second-person singular pronoun neo was used most frequently. Because the terms of address were selected purposely as a face-threatening act, terms of address can be seen as an impoliteness strategy. Lastly, the non-honorific final-ending was used for all the types of expression of opinion, but most commonly for objection. Unmarked replies were mostly used in agreement and topic-shift. The fact that expression of opposite opinion was most commonly impolite means that types of expression of opinion are connected with impoliteness.

Key Word : online reply, impoliteness, final-ending of non-honorific, half -honorific, ham style, neutralized style, terms of address, expression of opinion

엄진숙
소속: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 강사
전자우편: ujs0206@gmail.com

이 논문은 202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